

영토 확장 나서는 게임업계, 엔터 시장 지형도 바꾼다

업계, 엔터사업 진출·투자 속도
엔씨소프트, 8억출자 클럽 설립
ICT+엔터 결합 프로젝트 기대
넥슨, 샌드박스에 1.7조 투자
넷마블, 빅히트 지분 25% 인수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



스토리 소셜 게임 'BTS 유니버스 스토리' 출시 이미지. /넷마블

국내 게임업계가 잇따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체비를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투자 판을 늘릴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3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예능, 음악 등을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다. 게임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 게임을 공들여 몇년간 개발한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의 동생인 김택현 엔씨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8억원을 출자해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클럽'을 설립하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 결합한 프로젝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넥슨과 넷마블도 엔터 사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넥슨은 최근 국내 대표 MCN 회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협

업 관계를 구축했다.

넷마블은 이미 지난 2018년 '빅히트' 지분 25%를 2014억원에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방시혁 빅히트 대표의 시너지 효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IP) 기반 'BTS월드'를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하고, 이어 스토리 소셜 게임 'BTS 유니버스 스토리'도 글로벌 국가에 선보이며 엔터를 결합한 게임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엔터 산업에 특화

된 AI센터 설립했으며, 자사 대표 게임인 '크로스피어'를 배경으로 중국 드라마 '천원화선'을 방영해 엔터에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크래프톤 또한 드라마 제작사 히든스퀸의 2대 주주로 올라 영상 콘텐츠 제작 의지를 밝혔다.

게임사들의 영토 확장이 가속화되면 엔터 시장의 경쟁 지형이 바뀔 전망이다. 최근 엔터 시장은 전통적인 대형 기획사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반 정보기술(IT) 기업도 진출하며 경쟁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사의 경우 단순 자사 IP 기반 콘

텐츠 제작을 넘어서 게임 개발 노하우와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을 활용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은 양쪽 모두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사업 진출이 용이한 편"이라며 "향후에는 게임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단순 게임사에서 벗어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콘텐츠 강화하는 백화점, 복합몰 승부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윈
갤러리형 아울렛, 펫파크 등 선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전관 리뉴얼
MZ세대거냥 원스톱 쇼핑공간 구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윈

주요 백화점들이 놀이·먹거리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히 쇼핑에 있기보다는 여가 활동과 체험(쇼핑)을 함으로써 얻는 재미에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밀 엠브레의 유통 채널 관련 조사(7월 7~17일)에 따르면, 백화점을 방문할 때 '푸드코트'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채널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장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즉, 복합문화시설이 여가 활동 공간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서울 도심과 가장 가까운 프리미엄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

이스윈'을 4일 오픈한다. 기존 교외형 아울렛에 미술관·공원 등 문화·예술적 요소를 결합한 국내 첫 '갤러리형 아울렛'으로 고객들에게 쇼핑·문화·예술 등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려동물 천만 인구 시대에 걸맞게 B관 3층 옥상정원에는 업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용 펫파크인 '힌디 하우스(Heendy House)'가 오픈예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

는 테이블과 포토존, 음수대 등이 들어선다.

인도어몰은 쇼핑과 먹거리, 그리고 체험 요소가 결합된 '복합 쇼핑·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1층과 3층에는 아울렛 최대 푸드코트인 '푸드스퀘어'와 전문 식당가가 각각 들어선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전관 리뉴얼 진행중이다. 백화점의 얼굴로 여겨지던 1~2층에 해외명품, 화장품, 잡화 매장 등의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적극 도입했다. 영등포점 2층 전체에 MZ세대의 원스톱 쇼핑공간을 구현했는데, 온라인서 핫한 브랜드만 모아놓은 '유스컬처 조닝'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백화점이 콘텐츠를 강화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트렌드에 민감한 요즘 소비자들을 조금이라도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3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이모빌리티 간담회에서 (왼쪽 6번째부터)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조병철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 e모빌리티 산업, 지원 절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 이사장
전남 영광 e모빌리티 현장애로 청취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이번엔 e모빌리티(e-mobility) 분야의 현장 애로 찾기에 나섰다.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이 3일 오전 전남 영광에 있는 대풍이브이자동차에서 e모빌리티 분야 중소기업 및 영광군, 지역 유관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mobility'는 전기 동력을 이용해 생활교통 및 물류배송 목적의 1~2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이사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 조병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이사장, 노기찬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김준석 대풍이브이자동차 대표이사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준석 대표이는 "e모빌리티는 시장 형성초기 단계인 산업으로, 지역 내 기

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고민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김 이사장은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방식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국적선사를 활용한 해상운송 등의 물류 지원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김 이사장은 대풍이브이 자동차의 생산 현장도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이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한 이어달리기 방식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중진공은 전남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총력

중기중앙회-고용부, 협의체 구성
1차상담, 개선지침 배포 등 운영



(왼쪽부터)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협의체'를 꾸리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나누고, 본부는 중기중앙회 본부장과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지방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와

고용안정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토대로 8개 권역별 협의체로 각각 구성키로 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의지해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내 중기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받아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내용은 고용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별 고용센터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별로 구성돼 있는